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

◆차례◆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 문학의 숲과 나무

❶ 자화상_운동주-----1쪽 (55문제)

❷ 최적전_조위한-----17쪽 (51문제)

(2)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소광리 소나무 숲_신영복-----40쪽 (40문제)

❷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_이영희-----56쪽 (30문제)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1) 마음을 나누는 대화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67쪽 (33문제)

(2)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78쪽 (60문제)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1) 서정 갈래의 이해

첫사랑_고재종-----94쪽 (36문제)

(2) 서사 갈래의 이해

돌다리_이태준-----104쪽 (46문제)

(3) 극 갈래의 이해

성난 기계_차범석-----124쪽 (18문제)

(4) 교술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

상기_박지원-----136쪽 (26문제)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❶ 음운의 변동-----148쪽 (61문제)

❷ 한글 맞춤법의 원리-----164쪽 (65문제)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1) 어떻게 읽을까

미완성의 걸작_오주석-----182쪽 (15문제)

(2) 토론과 논증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189쪽 (14문제)

(3) 힘 있는 설득

설득하는 글 쓰기-----194쪽 (3문제)

▶정답-----196쪽

▶해설-----199쪽

(버전: 2020.03)

3-(2) 돌다리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배경	시간: 일제 강점기, 공간: 농촌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특징	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이 드러남 ③ 대조적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함 ④ 대화와 요약적 제시를 통해 내용이 전개됨		

1 '돌다리'의 구성

발단	창섭은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의전에 진학해 의사가 됨.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러 고향에 옴.
전개	창섭은 고향으로 들어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침.
위기	창섭은 아버지께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며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것과 부모님은 서울 집에 모시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함.
결정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땅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역설함.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깨달음.
결말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지나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다음 날 아버지는 고쳐 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는 땅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함.

2 '돌다리'의 인물 분석

(1) 주요 인물

아버지	일생 농사만 지어온 농부. 땅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지니고 있음. 물질적 가치보다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김.
어머니	아들, 손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평범하고 소박한 농촌의 여성
창섭	서울에 사는 의사로, 병원을 확장하여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음.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님.

(2)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 비교

	아버지	아들(창섭)
직업	농부	의사
사는 곳	시골(철원)	도시(서울)
가치관	• 전통적 가치 • 정신적 가치 • 내면적 가치 • 비합리적 가치 • 본질적 가치	• 근대적 가치 • 물질적 가치 • 외면적 가치 • 합리적 가치 • 수단적 가치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일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갑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쭙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 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얹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북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쭉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너이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들을 해 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이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구 튼튼한 돌루 노신 거란다.”

그 후 오륙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 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일 염두(念頭)14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面)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단 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 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해 오누?”

“인전 어머니서꺼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나거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얇한 것, 얇하

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참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는?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作滿)허신 논논이야. 돈 있다구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바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뭇루? 밭에 가 절허구 논에 가 절허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 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한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 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

들, 땅은 작인들한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있어 소출(所出)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농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金肥)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②창섭은 입이 열려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本位)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④아버지는 상을 물리기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허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나?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대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田莊)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마 골른지 아냐?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엔 다 팔 테다.

-이태준, <돌다리>

유신고등학교 (경기)

1. ㉠~㉣ 중 문맥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유신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상황과 관련 없이 떠오르는 인물의 의식을 기술하였다.
- ②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작품 밖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한다.
- ② ㉡에는 다리는 건널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 ③ ㉠은 ㉡보다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 ④ ㉡은 ㉠보다 만들기 쉽다.
- ⑤ ㉡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에서 밀려나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4. 윗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섭의 아버지가 마음에 돌다리를 처음 놓으셨다.
- ② 창섭은 천자문을 배우기 위해 돌다리를 건너 다녔다.
- ③ 창섭의 아버지는 돌다리도 인정을 갖고 대하고 있다.
- ④ 창섭의 어머니는 시집올 때 걸어서 돌다리를 건너왔다.
- ⑤ 창섭의 할아버지 산소의 상돌을 돌다리로 건너다 모셨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5.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 ② 점입가경(漸入佳境)
- ③ 적반하장(賊反荷杖)
- ④ 유구무언(有口無言)
- ⑤ 소탐대실(小貪大失)

유신고등학교 (경기)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보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 ②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③ 하늘보다 땅이 더 응과가 분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④ 가업인 농사 짓는 일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 ⑤ 땅에 거름 대신 화학 비료를 넣으려는 소작인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㉒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거장에서 샘말 십 리 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 말락 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꽃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아' 불러 보며 묵례(默禮)를 보냈다.

(나)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勤儉)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같이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前代)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 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구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허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시던 논, 아버지께서 멧덜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를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절용(節用)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비뚤은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독막이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뭇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 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들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 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 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 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일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견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갑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쭙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라)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

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㉑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는?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作滿)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가 어디 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리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㉒“…….”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뭇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㉓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얹어 소출(所出)은 팔어다 모다 ㉔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포단 땅이 얼마나 많을테냐? 해마다 견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㉕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新醫)들 ㉖주사침 놓듯, 애꾸진 ㉗금비(金肥)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덜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마)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얹어 ㉔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㉕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㉖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낭은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발을 내놓는다구 해 바라, ㉗문보나 ㉘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왔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나? 그러니 아주 말이 난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목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값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다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중략>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㉙백낙천(白樂天)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배 속이 고평은 것은 참아 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아버지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아버지가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이태준, '돌다리'

강동고등학교 (서울)

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구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돌다리'는 등장 인물들의 가족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 ③ 변동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군
- ④ 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인식이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는 근거야
- ⑤ 자본주의의 경제적 가치관이 부자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하겠군

강동고등학교 (서울)

8. 이 글에 나타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치관이 다른 두 인물 간의 갈등
- ② 한 개인의 욕망과 내면 의식 간의 갈등
- ③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간의 갈등
- ④ 개인의 욕구와 이를 제약하는 사회 제도와의 갈등
- ⑤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윤리 의식 간의 갈등

강동고등학교 (서울)

9. 이 소설을 읽은 후 독후감을 쓰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원 공사로 제 모습을 갖게 된 '광화문' 소개
- ② 전통 '옹기'를 고집하는 '독 짓는 늙은이' 예시
- ③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에 대한 비평
- ④ 의료 보험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활동과 서비스 체계 개편 제시
- ⑤ 금전적 가치와 경제성,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모습 제시

강동고등학교 (서울)

10. ㉚.....㉜에 생략된 말을 아들의 위치에서 재구성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 시골에 땅은 고작 삼천 원의 이익이 생길까 말까 한데 왜 그냥 놓아두시나요?
- ②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 땅이 무척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디 그런가요?
- ③ 늙으신 아버지께서 힘들게 농사나 짓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 ④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와 함께 이 곳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 ⑤ 아버지 말씀이 타당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강동고등학교 (서울)

11. 다음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나무다리
- ② ㉡ 도회지
- ③ ㉢ 거름
- ④ ㉣ 주사침
- ⑤ ㉤ 금비(金肥)

강동고등학교 (서울)

12. ㉞의 의미에 가장 알맞은 속담을 쓰시오.

강동고등학교 (서울)

13. ㉠백낙천(白樂天)의 시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지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저멋거니 돌이라 무거울가
늙기도 설웨라커든 짐을조차 지실가
- ②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면 이 몸이 살아시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혀 갓사올고
- ③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아
뉘손대 타나관대 양새조차 같으스다
한 젓 먹고 길러나이셔 닷마음을 먹디 마라
- ④ 한 몸 둘에 난화 부부를 삼기실샤
이신 제 함께 늙고 죽으면 한 데 간다
어디서 망녕잇 것이 눈 흘기려 하나뇨
- 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곳갈 식워 밥 먹이나 다르랴

강동고등학교 (서울)

14. ㉠~㉣ 중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 지주 ② ㉡ 사람 ③ ㉢ 용문
- ④ ㉣ 문보 ⑤ ㉣ 덕길

강동고등학교 (서울)

15. <보기>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검색한 결과이다. '말하기'의 방법으로 인물이 제시된 부분을 찾아 한 문으로 쓰시오.

<보기>

여러분의 짐작대로 '말하기'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보여 주기'가 인물의 대사라든가, 행동,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말하기'는 소설 속의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여 주기'라는 성격 제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말하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인물의 성격을 정확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여 주기'는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를 모두 '보여 주기'로 제시한다면 소설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요. 또 '보여 주기'만으로는 상황이 애매해서 자칫 독자들이 인물의 성격을 오해할 수도 있지요. '말하기'는 이런 점에서 성격과 상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동고등학교 (서울)

16.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 ㉡에 알맞은 상징을 쓰시오.

아버지	구분	아들
시골의 농부	직업	도시의 의사
생의 터전	땅	금전적 수단
㉠	상징	㉡
안분지족	삶의 태도	과욕을 부림
전통적, 자연 친화적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봄	성향	근대적, 실용적 땅의 자산 가치 중시

-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쪼그라들었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나갈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3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계4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나)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너이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돌을 해 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이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구 튼튼한 돌루 노신 거란다.”

그 후 오륙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중략>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라)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원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20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市)21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마)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사곡고등학교 (경북)

17. 다음을 참고하여 (가)에서 나타나는 고향의 변화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소설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파행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시에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밀려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가 나타났으며, 고향의 집과 땅 등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 ① 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농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농민들의 일상에 활력이 더해졌다.
- ② 도시와 농촌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해졌으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 ③ 서양의 농작문화가 유입되어 논밭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④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어 농민들을 대상으로 계몽교육이 실시되었다.
- ⑤ 땅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서구적 자본주의 가치관에 의해 농촌에도 근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곡고등학교 (경북)

18. (나)~(라)를 읽고 등장인물의 ‘아버지’와 ‘창섭’을 비교 및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창섭
직업	농사꾼	맹장 수술 전문의
사는 곳	농촌, 시골	도시
성격	*조상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성격-----①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성격 -----②
가치관	*땅을 금전적 가치로 여기는 세대 비판--③ *땅을 삶의 터전이자 근본으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④	*병원경영의 이익 추구 *땅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실리주의적 가치관-----⑤

사곡고등학교 (경북)

19. (마)를 통해 알 수 있는 작품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화를 경계하고 배척해야 한다.
- ② 사람과 물건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래 써야 한다.
- ③ 전통문화에 애착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④ 자연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경외심을 느껴야 한다.
- ⑤ 세대 간 가치관 갈등을 극복하고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3-(4) 상기

01 교수 감택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개념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 양식
형상화 방법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사색, 성찰 등을 개성적인 발상이나 문체로 형상화함.
종류	설(說), 기(記), 수필 등

02 '상기(象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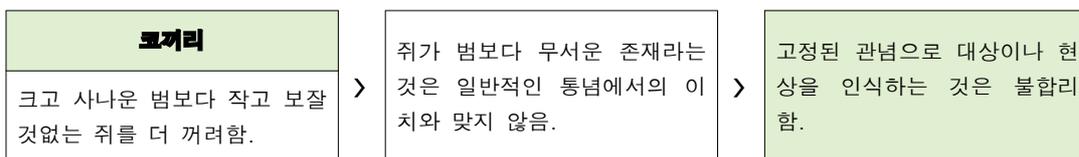
03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04 '사람들'과 작가의 문답



05 고정된 시각으로 판단할 때의 오류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 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경을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나)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야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라)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흠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바)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랙에서 굴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댄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사)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돌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박지원, ‘상기’

광성고등학교 (서울)

1. (가)~(마)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여 현재 대상으로부터 느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나열한 뒤에 동의하고 있다.
- ③ (다):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여, 모든 일이 의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의 인식을 열거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마):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된 글을 인용한 뒤, 예시를 통해 당시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작가는 열하 행궁에서 코끼리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굉장함을 느꼈다.
- ② 작가는 ‘뿔이 있는 것에겐 뿔니를 주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다.
- ③ 작가는 동해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고래를 본 경험을 코끼리를 본 경험과 연결 짓고 있다.
- ④ 작가는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가 코끼리의 몸통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부분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 ⑤ 작가는 ‘하늘’이라는 솜씨 좋은 장인이 쉬지 않고 일해 만물을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다음을 바탕으로 (바)문단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학생은?

문답의 구조는 작가가 일방적으로 글을 전개하지 않고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개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상기>에서 연암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드러냈는데, 대화와 문답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난해하거나 논란이 많은 내용을 독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다. 둘째,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기에 용이하다. 셋째, 독자 스스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 ① 혜주: 작가는 문답의 구조를 활용해서 독자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던 것 같아.
- ② 성희: ‘이치’를 중요시했던 당해 사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문답의 구조를 활용해서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어.
- ③ 지민: 나는 연암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어.
- ④ 정분: 문답의 구조로 문단을 진행하니, 연암이 제시한 문제의 해결 과정이 잘 드러나서 이해하기 편했어.
- ⑤ 민경: 연암이 실제 겪은 일화를 문답으로 구성해서 생생함도 잘 느껴졌어.

㉒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㉑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와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㉓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㉔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뿔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뿔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뿔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㉕“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댄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㉖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 박지원, ‘상기’

배재고등학교 (서울)

4. 다음은 윗글과 서정 갈래를 비교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윗글은 서정갈래에 비해 자아의 주관적 감정이 현실을 압도한다.
- ㉒. 윗글은 서정갈래에 비해 대상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㉓. 윗글은 서정갈래에 비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감응을 중심으로 한다.
- ㉔. 윗글은 서정갈래와 달리 작가의 대리인 없이 독자에게 내용을 직접 전달한다.

- ① ㉑, ㉒
- ② ㉑, ㉓
- ③ ㉒, ㉔
- ④ ㉑, ㉒, ㉓
- ⑤ ㉒, ㉓, ㉔

배재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자는 신의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② 피리자는 코끼리 어금니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필자는 맷돌의 작용은 불규칙적이라고 생각한다.
- ④ 필자는 소는 하늘의 이치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⑤ 필자는 초월적 세계를 들어 사람들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토대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이 글은 극적인 질문으로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연성을 활용하거나 정의를 내려 독자를 이해시키죠. 그리고 문답식 전개를 취하여 상대를 궁지로 몰아가는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끼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함을 통해 확실적 사고의 폐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단락은 단절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어 독자들은 끝까지 긴장하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① ㉠은 설의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군
- ② ㉡은 특정 단어를 필자가 생각하는 뜻으로 정의를 내려 이해를 돕는군
- ③ ㉢은 우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비유를 사용하는군
- ④ ㉣은 상대성에 대한 설명으로 어금니와 코의 상보적 관계를 정립하는군
- ⑤ ㉤은 앞 단락과 연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 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갈,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람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졌다 폼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 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

을 끼워서 돌돌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감감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궁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맺들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A] [감히 묻는다.

“이뿔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뿔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랙에서 굴러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덜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12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박지원, ‘상기’

유신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인물이 겪는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외부 세계가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감응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연히 일어난,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함
- ② 과거에 동해 바닷가에서 코끼리를 보았던 경험을 회상함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코끼리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함
- ④ 코끼리의 눈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과 새로운 인식을 언급함
- 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여 코끼리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함

유신고등학교 (경기)

9. 윗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①	상제(上帝)	천(天)	신(神)	건(乾)
②	건(乾)	상제(上帝)	천(天)	신(神)
③	신(神)	천(天)	건(乾)	상제(上帝)
④	천(天)	건(乾)	상제(上帝)	신(神)
⑤	건(乾)	신(神)	상제(上帝)	천(天)

유신고등학교 (경기)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을 표현한 것이다
- ③ ㉢: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 ④ ㉣: 만물을 만들어 내는 하늘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⑤ ㉣: 사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담겨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11. 윗글의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A]에서 활용한 (1) 글의 전개 방식을 쓰고, [B]에서 확인 할 수 있는 (2) 작가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4-(1) ② 한글 맞춤법의 원리

1.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뜻함.
필요성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으로서, 올바른 표기 생활을 위해 맞춤법이 필요함.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 1. '소리대로 적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을 의미함. • 한글은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함. <p>예) 돌[돌], 눈물[눈물], 꿈[꿈]</p>
원칙 2. '어법에 맞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형태소를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일하게 표기함. • 단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 →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으면 그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음. <p>예) 읽어[일거], 읽는[잉는], 읽자[익짜] → '읽-'</p>

3.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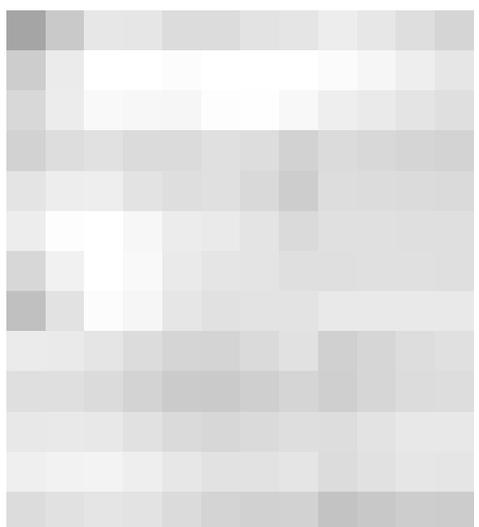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의 단어(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감탄사, 조사)는 띄어 써야 함.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제41항) → 다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그 앞의 말에 붙여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를 하면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함. •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임.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돼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되’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햇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짹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회전율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ㅂ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을’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②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③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④ 확율(確率), 실패율(失敗率)
 ⑤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머거(X), 놓아(○)/노코(X)

한글 맞춤법 규정	올바른 표기
① ㉑	(그럴 꺾×, 그릴 꺾○)
② ㉒	(따뜻히×, 따듯이○)
③ ㉓	(오투기×, 오투이○)
④ ㉔	(찾아봘니×, 찾아봘니○)
⑤ ㉕	(공염불×, 공염불○)

정말고등학교 (경기)

17.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만을 (나)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 연습하기

㉑ '솔'에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를 '소나무'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㉒ '쓰러지다'를 '쓸어-'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㉓ '집'에 접미사 '-옹'이 결합된 파생어를 '지붕'으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㉔ '구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할 때 '구르미'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㉕ '밭-'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을 항상 '밭'으로 고정시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㉖ '女性'을 원래 음을 밝힌 '녀성'으로 적지 않고 '여성'으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① ㉑, ㉓, ㉕ ② ㉒, ㉔, ㉖
- ③ ㉓, ㉕, ㉖ ④ ㉑, ㉒, ㉓, ㉕
- ⑤ ㉑, ㉒, ㉕, ㉖

정말고등학교 (경기)

18.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㉑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㉒

예 국수, 납작

제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㉓

예 똑딱똑딱, 눅눅하다

- ① ㉑를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가 소리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영동하다'가 아니라 '영똥하다'로 적는 것은 ㉑의 '몽땅'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난리법쩍'이 아니라 '난리법척'으로 적는 것은 ㉒의 '납작'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민밋하다'가 아니라 '밋밋하다'로 적는 것은 ㉕의 '눅눅하다'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씩뚝'이 아니라 '씩뚝'으로 적는 것은 ㉖의 규정을 따를 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정말고등학교 (경기)

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빛물, 등꽃길, 뒷일, 헛수, 깻잎, 꼭짓점, 아랫마을

<보기 2>

조건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	→	아니 오
↓ 예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	→	아니 오
↓ 예		
1.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ㄱ, ㄷ, ㅃ, ㅆ, ㅈ'으로 난다.		사이 시옷을 적지 않는다.
또는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또는		아니 오
3. ㉑		
↓ 예		
사이시옷을 적는다.		
1. 등꽃길, 꼭짓점		
2. ㉒		
3. ㉓		

5-(1) 미완성의 걸작

01 글의 구성

처음	공간1	공간2	공간3	끝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과 그에 대한 상념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옛 사진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	윤두서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 추정	미완성 속에 높은 예술성을 간직한 윤두서 '자화상'

02 '자화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문

	윤두서의 '자화상'	필자의 의문	의문 해결
첫째 의문	작품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음.	작품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이하곤의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이 '자화상'과 일치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둘째 의문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하는 등 당대 사대부의 미감과 맞지 않음.	작품이 미완성인 것은 아닌가?	1937년 "조선 사료집진속"의 사진을 통해 유탄으로 그려져 있던 상반신 윤곽선이 사라진 미완성작임을 확인함.

03 '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첫인상	눈매가 매서움.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기를 발산하는 듯함. 섬뜩한 공포감이 듬.
↓	
선입견을 배제하고 바라봄.	이목구비가 단정함. 바깥으로 뻗은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함. 귀, 목, 상체가 없어 목에 간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함.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에서 무서움을 느낌.
↓	
옛 사진에서 밝은 인상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가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안듯이 얼굴을 받쳐 줌.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을 띠.
↓	
최종 평가	미완성작이지만 예술성에서는 완벽함.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과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보여 줌.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1668~1715)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중략>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 쳐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중략>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아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오주원, ‘미완성의 걸작’

초당고등학교 (경기)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필자의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결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대상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밝히며 그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초당고등학교 (경기)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기〉

독서는 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글쓴이와 독자의 대화이자 의사 소통 행위이다.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독서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독자는 독서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 행위는 작가는 독자와 글쓴이가 만나는 일이며, 크게는 독자와 글쓴이가 속한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 나아가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사회·문화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은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삶과 사회 현실을 기록한 것으로, 독서를 통해 그 책이 쓰인 시대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그 시대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글쓴이의 첫인상에 대해 공감하며 읽었다.
- ② 자신의 고미술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③ 윗글에서 인용한 "효경"에 드러난 사대부들의 윤리 도덕을 통해 조선 시대와 소통할 수 있었다.
- ④ 윤두서의 '자화상'과 자신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자화상인 강세황의 '자화상'을 떠올리며 감상하였다.
- ⑤ 윤두서의 '자화상'은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루는 정면상이고 수염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당고등학교 (경기)

3. '자화상'의 첫인상에 대한 필자의 감상과 다음 <보기>에 기록된 '자화상'에 대한 감상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보기〉

여섯 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을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려서서 경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 (이하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숲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어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결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 [A] 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결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 오주석, '미완성의 결작'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4.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자화상의 전체 구도와 당대의 평가는 어떠한가?
- ② 자화상의 윤곽선이 사라진 작업상의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미적 가치관의 근거는 무엇인가?
- ④ '조선 사료집전속'의 사진 속 자화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 ⑤ 자화상처럼 작품이 중간에 중단된 작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5. 다음을 참고하여, 밑글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을 의도적으로 '미완성'으로 남기는 기법을 흔히 '논피니토'(non finito)라 부른다. '논 피니토'라고 하면 당장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떠오르지만, 논 피니토 기법은 미켈란젤로의 발명품이 아니다.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의 논 피니토는 중세의 미완성작과는 달랐다. 중세의 미완성이 주로 재정문제와 같은 외적 요인의 결과였다면 르네상스의 미완성작은 종종 창작의 고뇌와 같은 내적 갈등의 소산이었다.

미완성작이 예술가의 내적 갈등의 결과로 빚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두 개의 구별되는 단계가 존재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1) 작가가 그저 창작의 한계에 부딪혀 작품을 미완성으로 방치하는 것과 2)미완성의 상태 그 자체를 또 다른 완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르네상스의 다른 작가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미켈란젤로는 확실히 첫째 단계를 넘어서 둘째 단계까지 나아가려 했던 것 같다. 후기로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겨 놓곤 했는데, 이는 그의 예술적 의도가 논 피니토를 만드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진중권, '완성으로서의 미완성'

- ① 미완성은 작가의 역량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군.
- ② 미완성은 작가가 우연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기획이군.
- ③ 미완성은 작가의 천재성이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군.
- ④ 미완성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예술적 사조이군.
- ⑤ 미완성은 창작 과정에서 고민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결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1677~1724)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尹孝彦自寫小眞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언(孝彦)은 윤두서의 자이다.

여섯 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

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8”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쏘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창덕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화상’ 속에는 작가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제목은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 ③ 최순우와 필자는 ‘자화상’을 보고 느낀 첫인상이 비슷하다.
- ④ 필자는 작품의 보관 상태를 근거로 ‘자화상’의 작업이 우연히 중단되었다고 추측했다.
- ⑤ ‘자화상’의 원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하곤의 찬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창덕여자고등학교 (서울)

7. <보기>의 밑줄 친 목적에 따라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읽기 목적: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

- ① 필자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나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② ‘자화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필자의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다.
- ③ 자신이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보고 그것을 내면화하며 읽는다.
- ④ 필자가 윤두서의 ‘자화상’에 제기한 의문과 해소 과정을 정리해 가며 읽는다.
- ⑤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까닭에 대한 필자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창덕여자고등학교 (서울)

8. 글쓴이가 ‘자화상’이 미완성이지만 걸작이라고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 ② 예술성의 중요한 척도는 작품의 형식적 완성도이다.
- ③ 우리의 예술과 서양의 예술을 평가하는 잣대는 달라야 한다.
- ④ 작품 재질에 어울리는 형상화의 방법을 찾을 때 예술적 완성도는 높아진다.
- ⑤ 예술적 가치는 예술가의 어떤 정신을 드러내는가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창덕여자고등학교 (서울)

9. (1) ㉠이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고, (2) 충격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찾아 쓰시오.

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③ 46.① 47.② 48.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㉞-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㉞-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② 60.⑤

3-(1) 첫사랑

1.⑤ 2.③ 3.③ 4.첫사랑을 이름. 5.③ 6.⑤ 7.④ 8.① 9.④ 10.② 11.역설(모순), 아름다운 상처 12.③ 13.③ 14.③ 15.①④ 16.③ 17.③ 18.④ 19.② 20.③ 21.④ 22.④ 23.③ 24.② 25.⑤ 26.① 27.화자는 우물을 들여다 보며 미움의 정서를 느끼며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 자신이 가엾어 지고 도로 가 들여다 보니 미워졌으며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니 그리워진다. 28.① 29.⑤ 30.② 31.역설법을 사용하여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냄. 32.④ 33.⑤ 34.③ 35.② 36.④

3-(2) 돌다리

1.⑤ 2.④ 3.⑤ 4.③ 5.④ 6.⑤ 7.③ 8.① 9.④ 10.⑤ 11.③ 12.콩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13.② 14.① 15.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16.㉞: 돌다리 ㉞: 나무다리 17.⑤ 18.② 19.③ 20.④ 21.② 22.③ 23.① 24.④ 25.② 26.① 27.⑤ 28.④ 29.② 30.② 31.④ 32.⑤ 33.① 34.④ 35.② 36.④ 37.④ 38.② 39.② 40.④ 41.③ 42.⑤ 43.② 44.② 45.① 46.㉞는 땅을 물질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보고 있으므로 그의 관점에서 ㉞의 인식을 올바르게 옳지 않다.

3-(3) 성난 기계

1.⑤ 2.③ 3.④ 4.⑤ 5.① 6.① 7.④ 8.⑤ 9.④ 10.② 11.③ 12.③ 13.② 14.③ 15.③ 16.④ 17.④ 18.③

3-(4) 상기

1.② 2.④ 3.⑤ 4.④ 5.① 6.④ 7.② 8.② 9.④ 10.② 11.문답법,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음 12.④ 13.③ 14.확실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 관념에 대한 경계 15.③ 16.② 17.④ 18.② 19.④ 20.⑤ 21.② 22.② 23.⑤ 24.① 25.② 26.서술자가 사람들의 비판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함

4-(1) ①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희],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깼따] 8. ⑤ 9.① 10.④ 11.② 12.㉞ [달근] ㉞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②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ㄹ'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4-(1) ② 한글 맞춤법의 원리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싹둑싹둑, 회전롤→회전울, 촛점→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백분율, 덧가→대가, 빼어야→빼야(뺏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㉞ 빗물, 아랫마을 ㉞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울→선울, 몹시→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울→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 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연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찌를√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뚱그려:㉠, 씹슬한→씹쓸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ㄴ. 뵈요→뵈요 ㄷ. 순대국→순댓국 65.②

5-(1) 미완성의 결작

1.⑤ 2.⑤ 3.필자-보는 이를 압도하는 무서움, 이하곤-겸양하는 풍모를 지닌 군자 4.① 5.⑤ 6.⑤ 7.③ 8.⑤ 9.귀, 목, 상체가 생략됨 / 당시의 미감과 거리가 멀 10.① 11.⑤ 12.② 13.① 14.③ 15.①

5-(2)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1.⑤ 2.(가): 가치 논제 (나): 정책 논제 3.⑤ 4.③ 5.③ 6.④ 7.⑤ 8.① 9.① 10.② 11.⑤ 12.③ 13.⑤ 14.찬성 1은 반대 측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며 공격하고 있다

5-(3) 설득하는 글 쓰기

1.② 2.-개념정의-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한다. 3.(나)는 전문 기관의 통계 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가)보다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높다

- 끝 -